

한국인 주거생활의 중심인 불

이 용 범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오 늘날 우리에게 불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은 참으로 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우리는 불을 얻을 수가 있으며, 우리의 주변에 항상 가깝게 존재하는 것이 불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불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에게 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을 어떻게 얻느냐가 아니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상의 것이 되면서 불은 더 이상 소중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는 과거에 불씨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주부들의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였고, 불씨를 꺼뜨리는 것이 며느리를 소박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날의 우리는 불이 우리들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다.

불은 인간이 동물적인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인간문명의 출발을 가능케 한 중요한 중의 하나이다. 불이 가져다주는 빛과 열, 온기,

그리고 불이 있어서 가능했던 도구의 제작 등은 인간 문명과 인간다운 삶의 기초이다. 불을 이용해 인간은 추위를 이길 수 있었고, 사나운 동물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아울러 불이 주는 빛을 이용해서 어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불은 철기와 같은 금속을 인간이 필요한 도구로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어느 한 순간 불이 인간의 삶에서 사라진다면, 그 즉시 인간의 삶은 불을 사용하기 전의 원시상태로 되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인간의 삶과 문화에서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계의 여러 신화를 통해서 확인되며, 아울러 한국의 신화에서도 불의 그러한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함경도 함흥지방의 큰 곳에서 나타나는 창세(創世)신화인 <창세가>(創世歌)에는 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륵님 시절에는 불이 없어 생식을 하였는데, 불도 안 때고 곡식을 생으로 먹었기 때문에 미륵님은 섬들이 말들이로 식사를 하였다. 그래서 안되겠다고 생각한 미륵님은 물의 근본과 불의 근본을 찾기로 결심하였

다. 그리하여 풀메뚜기를 잡아다 형틀에 올려놓고 무릎을 때리면서 물의 근본과 불의 근본을 아느냐고 물었다.……그제서야 생쥐가 대답하기를 ‘금당산에 들어가서 한쪽엔 차돌을 들고 한쪽엔 시우쇠를 들고 툭툭 치니 불이 일어났고요……’ 미륵님이 물과 불의 근본을 이렇게 하여 알은 후에 인간을 점지하였다.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5~16쪽)

이 신화는 물과 함께 불이 주어지면서 인간의 문화적인 삶이 가능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역시 함흥 지방의 무가(巫歌)인 <생긔>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타난다.

집당에 당진하였는데 인간 사람이 불 없이 어찌 사오,
물 없이 어찌 사오, 내미(木) 없이 어찌 살가 불과 물
이 있어야 된다. 생쥐를 부들어서 생명 샘재 드러치
니……’ 천태산 내막에 들어가서 차돌을 놓고 수리칙
을 때놓고 검은 산위에 쇠에 쇠끝을 놓고 삼 세 번을
드레 치며 불에 근본이 나옵니다.’ 불에 근본을 가르
쳤소, 물에 근본을 가르치자.(김현선, 《한국의 창세신
화》, 길벗, 259~260쪽)

불에 대한 이런 생각은 단군의 아들 부소와 관련된 전승에서도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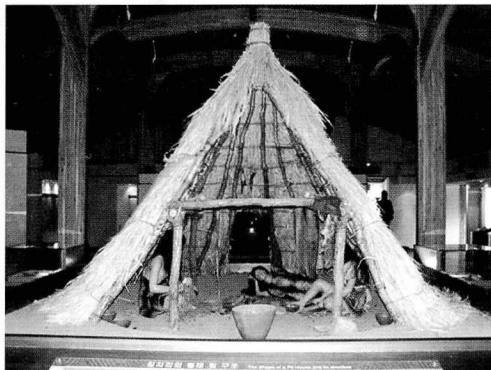
우리 신화에서는 단군의 셋째 아들 부소가 불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세상에 맹수와 독충이 생기고 돌림병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죽자 부소가 부싯돌을 만들어 불을 일으키고 이 불로 숲을 태워 해로운 것들을 없애는 한편 돌림병도 물리쳤다고 한다. 부싯돌이라는 말은 부소석이 변한 이름이라고 전한다.(<불>,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371~372쪽)

위의 설명이 전제하고 있는 부소에 대한 이야기의 사실성 여부를 떠나, 이 이야기 역시 불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현재와 같은 문화를 가지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부소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문화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불이 인간의 문화적인 삶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삶에서 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종교적 신앙의 대상의 하나였으며, 아울러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불의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대부분 다 잊혀진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인의 민속관행에는 불이 한국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가 나타나 있다.

불이 한국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는 일차적으로 한국인의 주거문화를 통해서 드러난다. 선사시대의 주거 유적들을 보면, 당시의 주거공간이 불을 피우는 화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원초적인 주거생활이 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서울의 암사동 주거유적의 경우, 새로 만든 주거지 화덕 바로 밑에 이전시기의 화덕들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불이 종교적 의미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주거생활이 불과 분리될 수 없고 불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은 오늘날 한국인의 입택(入宅) 관행과 불이 모셔지는 부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오늘날 신축이나 이사를 통해서 새로운 집에 입주하게 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불씨가 안치된다.



암사동 주거공간 내부

즉 새 집에 들어갈 때는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핀 다음 이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입택 시에 무엇보다도 먼저 불이 새 집으로 들어가는 관행은 지역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때 이전 집에서 살린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고 다른 이삿짐과 함께 가지고 가서 가장 먼저 새 집에 들여놓았다. 요즘처럼 연탄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지어 기존에 쓰던 전기밥솥을 먼저 안방에 옮긴 다음 다른 짐들을 부리기도 한다. 이는 한국인의 주거생활에서 불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주거공간의 설정에 있어서 이처럼 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문화에만 한정된 일은 아니다. 인도에 있어서도 한 지역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선택할 경우 먼저 불의 신인 아그니(Agni)신을 위한 불의 제단을 세워야 되며, 그 이후에야 그 공간에 비로소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불은 주거생활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불의 중요성은 이전 한국사회에서 집안에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였고 대를 이어 후손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며느리

가 시어머니에게서 불씨를 이어받는 것은 그 집안의 가통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였다. 만약 새 며느리가 물려받은 불씨를 부주의로 꺼뜨리면 계승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흔히 주인부부가 거주하는 안방을 한 집안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부엌은 안방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한 집안의 핵심적인 공간이었다. 사실 부뚜막이 있는 부엌과 취침공간으로 사용되는 안방은 칸막이로 구획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하나의 공간으로 존재해왔다. 북부지역의 곁집에서 볼 수 있는 '정주간'의 모습은 벽으로 구분되기 이전의 부엌과 방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비록 부엌이 취침공간인 방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부엌과 안방은 집을 이루는 분리될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였고, 그래서 부엌과 안방은 반드시 인접해서 하나의 단위로 살림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술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엌은 하나의 생활단위를 상징한다. 한 집안 식구라는 것은 공동의 불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불을 공유한다는 것이 한 가족공동체의 기본 요건인 것이다.



조왕신그릇. 물이 담겨진 증지나 단지를 올려놓고 조왕신을 모셨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 내에는 하나의 부엌만 존재하는 것이고, 부엌의 분리는 취사단위의 분리 이상인 생활단위의 분리를 의미한다.

불의 공간인 부엌이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부엌은 금기의 공간이며, 불의 신인 조왕신이 좌정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조왕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치성행위가 이뤄진다. 우선 집을 지을 때 아궁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히 날을 받아야만 했다. 이것은 아궁이를 개조하거나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손이 없는 좋은 날'을 택해 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며, 부뚜막에 걸터앉거나 발을 올려놓는 것 등은 엄격한 금기로 여겨졌다.

조왕신의 형태와 봉안(奉安)위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조왕증발'이라 하여 부뚜막에 작은 물그릇을 올려놓는 형태가 보통이다. 가족의 생일이나 제사, 명절 때 음식을 바치며, 집안에서 굿을 할 때도 조왕신을 따로 위한다. 조왕신에 대한 치성행위로 전국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나타나



재래식 부엌의 내부 모습

는 모습은 집안의 주부가 매일 또는 며칠에 한번씩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손을 비비며 기원을 하는 것이다. 조왕에게는 가족의 수명과 무사함이 기원되는데, 특히 가족 중에 객지에 출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안전을 기원한다. 이처럼 조왕은 부엌에 위치해 있는 신이어서 여성주부의 신앙처럼 여겨져, 조왕신앙은 한국여인의 가족애와 모성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한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 이사 간 집에 찾아갈 때 성냥이나 양초를 사가지고 찾아가는 관행이 있었다. 왜 이사 간 집에 찾아갈 때 다른 물건들을 제쳐두고 선물로서는 대단치도 않은 성냥과 양초를 가지고 갔을까? 그것은 성냥과 양초가 바로 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자리에서 부정된 것들을 다 제쳐버리고, 아울러 불이 활활 타오르듯 가운(家運)이 융성하고 번창하기를 비는 의미로 성냥과 양초를 이사 간 집에 가지고 갔던 것이다. 요사이 이사 간 집에 많이 들고 가는 세제(洗劑) 역시 비슷한



달집태우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세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고 닦아내는 것으로서 불과 마찬가지로 삶의 공간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세제는 쉽게 부풀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가세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민속에서 불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부정성을 정화하고 삶을 번창, 번영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불의 또 다른 속성인 파괴의 이미지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불의 신인 조왕신이 좌정한 공간은 정화의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가족 가운데 먼 여행에서 돌아오거나 상가집에 다녀온 사람들은 먼저 부엌에 들러서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이것은 조왕신 즉 불의 정화의 힘을 빌어 혹시나 따라 붙었을지도 모를 부정성을 제치기 위한 것이었다. 혼인한 새색시가 시댁에 처음 들어올 때 문 앞에 화톳불이나 켜붙을 피워 그것을 뛰어넘어 집으로 들어오게 한 것도 불이 가진 정화의 능력으로 부정과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다.

앞에서 예로 든바 있는, 한 집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대대로 이어간다든지 아니면 새 집으로 이사갈 때 이전 집에서 쓰던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또한 지금까지 그 집안을 번성케 했던 불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정월 대보름날 밤에 행해지던 쥐불놀이, 횃불놀이, 달집태우기도 불이 가진 정화와 번창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 새해 첫 만월이 떠오르는 보름날 밤에 불을 피워서 이전까지의 액운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한해에 집안과 마을이 번성하고 잘되기를 빌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현실 생활에서 경험했던 불의 위험성을 몰랐다고는 할 수 없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병조, 의금부, 형조, 한성부,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등에서 숙직하는 관리들이 화재를 막기 위해 순찰을 돌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때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을 두어 화재방지에 힘썼고, 방화벽을 쌓고 방화수를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화재를 일으킨 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다. 민간에서도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불막이 민속의례가 행해졌다.

이처럼 불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불의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보다 부각되는 것이 한국민속문화의 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불을 멀리하고 그 위험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불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문화의 한 요소로 끌어들여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㉞